

순천 원도심서 '문화콘텐츠 대축제' 한마당

7-8일 이틀간 시민로·남문터광장 일원 루미·퐁이 팝업·공연·체험·이벤트 '풍성'

순천시가 원도심에서 웹툰·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로 채운 도심형 문화축제를 연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7-8일 이틀간 시민로와 남문터광장 등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콘텐츠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인 '주말의 광장', 콘텐츠 축제 '원즈(Wants)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잇슈(Issue)' 등을 연계해 원도심 전역을 새로운 문화광장으로 재탄생한다. 먼저 '주말의 광장'은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콘텐츠로 채워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해방로드로, 원도심에서 처음 선보이며 연중 도심 권역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원도심 시민로 일원에서는 유명 크리에이터 창현의 거리노래방과 춤추는 곰돌이 랜덤댄스, 야외 레이저태그, 인기 캐릭터 팝업스토어, 창작마켓, 캐리커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같은 기간, 남문터광장 일원에서는 콘텐츠 축제 '원즈 순천'과 정책 축제 '알고잇슈'가 함께 열린다. '원즈 순천'은 원도심 웹툰·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순천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



리로 마련된다. 순천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퐁이' 팝업매장,

'신비아파트' 심어롱쇼, 인기 캐릭터 '벨리곰' 편위킹, 애니메이션 '퇴마록' 상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알고잇슈'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아동·청소년,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부스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하며, 주제관에서는 순천의 도시 위상 변화와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소개한다.

육천면에는 인기 캐릭터 '물랑이' 조형물이 포토존 역할을 하고, 도심 속 캠핑형 휴식공간, 옥천 포차도 함께 운영된다. 원도심 골목 상권과 연계한 배달존도 운영돼 지역 음식과 상점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순천 문화의 거리에서도 지역 소상공인과 창작자가 참여하는 로컬 플리마켓인 '꽃마켓'과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경연대회인 '청소년예술제'가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어두웠던 도심의 저녁은 이틀간 메인 공연으로 밝게 채워진다. 7일은 인기 가수 '에일리'가 참여하는 원즈쇼, 8일은 인기 밴드 '데이브레이크'를 필두로 엔딩로드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도심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채우고, 나아가 젊은이들과 기업이 몰려드는 살아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기간 동안 시민로 일원(글로벌웹툰센터-K2)과 남문터광장 옆 옥천길 일부 구간은 차량이 통제된다. /순천=정기기자

도심 속 캠핑 '광양 구봉산 숲속야영장' 문 연다

야영테크·숲속의집 등 총 33면 규모

7일부터 시범 운영...30일 정식 개장

광양시가 도심 속 자연 속 힐링 공간인 '구봉산 숲속야영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광양시는 2일 "오는 7일 오후 7시 광양시 황길동 산45-11번지 일원에서 '구봉산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항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골약동 주민과 캠핑 참가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식, 개장 퍼포먼스, 기념 촬영, 캠핑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2021년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어린이테마파크 내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도비 19억원을 포함해 총 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야영테크 28면과 숲속의집 5동이 마련돼 총 33면에서 동시 야영이 가능하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개장식 이후에는 주말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0일 정



구봉산 숲속야영장 전경과(사진 위) 숲속형 심터 숲속의집. <광양시 제공>

식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야영장 구역에 따라 2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이며, 예약은 6월 중순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을 통해 가능하다.

광양시는 구봉산 숲속야영장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상생농이

터와 함께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 휴식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란 관광과장은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도심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 속에서도 주변 상권의 발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설치

10개소 설치...군민 안전 보행환경 마련

화순군은 2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험이다. PM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토록 했다.

또한 PM 공유업체와 협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치 장소는 ▲신기교차로 인근 ▲화순군청

빗물정원 ▲힐스테이트 아파트 ▲화순우체국 ▲한양리 아파트 ▲화순문화원 인근 ▲제일중학교 후문 ▲화순중학교 ▲부처샘공원 ▲서라차 아파트 등 10개소로 총 100여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PM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용 주차장 조성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도 더욱 편리하게 PM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회는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사업 6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협조사항을 공유했다. <장흥군 제공>

특량만강진만권행정協, 공동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장흥군청서 추진상황·협조사항 공유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회는 "최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장흥·고흥·보성·강진군의 업무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사업 6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오는 17일 개최될 제2차 정기회의의 안건을 협의했다.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회는 이번 직거래를 계기로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추상이 장흥군 기획홍보실장은 "수년간 이어져온 4개군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올해 예정된 공동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회의 운영이 지자체간 연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회는 지난 2016년 발족 이후 인근 지자체간 우호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공동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장흥=노홍렬기자

장성, 산불 예방 '산림재난 대응 숲' 조성

26억 투입·1천여ha...탄소중립 실현

장성군이 26억원을 투입해 '산림재난에 강한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피해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어린이나무 가꾸기 ▲미세먼지 공익림 가꾸기 등 구분되며 총 1천여ha 규모다.

주목되는 사업은 '산불예방 숲가꾸기'다. 장성군은 나무의 밀도를 조절하고, 숲속 부산물을 제거하는 등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숲을 집중 관리하고 가지치기와 수야베기 작업을 통해 산불 확산 경로를 차단한다.

향후 천년고찰 백양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

암서원 등 주요 문화유산과 사찰 주위에 내화수종 보호숲을 조성해 대형산불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조림지 가꾸기'다. 650ha에 걸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편백, 상수리, 목백합 등 큰나무들은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1-3년생 어린나무 주변은 가지를 정리해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풀베기, 덩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공익림은 산림 고유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난 3월 발생한 전국규모 산불은 산림 10만ha가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며 "산림재난에 강한 숲을 만들어 군민 안전을 확보하고, 숲이 지닌 경제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자



보성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박차'

5개 지역대학 참여 업무협약 체결

보성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보성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의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협약은 보성군과 지역학교 및 대학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보성군을 비롯해 ▲보성고등학교(교장 김문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순천대학교 농생

명과학과 ▲포도대학교 국제문화학과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성군의 미래산업, 청년 일자리, 특성화 교육과 연계된 실질적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성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기반 지역인재 양성 ▲지역 특화 차(茶) 산업 연계 ▲농수산·문화관광 특화 교육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협약은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라며 "보성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는 지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여수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논의

여수시는 "최근 상황실에서 정경명 여수시장과 국·소·단장 등 간부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합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상향을 목표로 '시민체감 청렴인식강화', '청렴한 소통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청렴인프라 구축 및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추진전략 및 5개 세부시책으로 구성됐다.

여수시는 ▲노사가 함께하는 청렴한 데이 ▲외부 민원인 및 내부 직원 자체 청렴도 조사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청렴 문화 콘서트 운영 ▲'청렴한 아침방송' 등 시책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경명 시장은 "공직자질을 강화하고 수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각 확립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감사, 계약심사, 회계감사 등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향상에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진선기자